

# 유엔, 아프간 현지 활동 중단 검토

### 탈레반 '여성 근무 금지' 대응

### 직원 3300명 재택근무 지시

### 아프간 국민 어려움 심화될 듯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유엔(UN) 현지인 여성 직원의 근무를 금지하자 유엔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현지 활동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엔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여성 직원 근무 금지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며 유엔은 그 조치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은 "탈레반 정권은 이 금지 조치를 통해 유엔으로 하여금 아프간 국민 지원과 규정 준수 사이에서 끔찍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탈레반 정권이 관련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아프간 내 구호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dpa통신은 "유엔이 아프간 내 활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유엔은 현지 운영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현지인 남녀 직원 3300여명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집에 머무르라고 지시했다.

앞서 유엔은 탈레반 당국에 의해 현지인 여성 직원의 유엔 사무실 출근이 막히자 지난 5일부터 전체 현지인 직원에게 당분간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했는데 이 조치가 연장된 것이다.

유엔은 현재 아프간에서 여러 비정부기구(NGO)의 구호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유엔이 현지 활동을 중단하면 최악의 경제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프간 국민의 어려움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이번 성명에서 아프간 국민의 위기와 관련한 어떤 부정적 결과도 탈레반 정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탈레반은 2021년 8월 재집권 후 사리아(이슬람 율법)를 엄격하게 적용하며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활동을 막아오고 있다.

현재 여성들은 공원, 놀이공원, 체육관, 공중목욕탕 출입이 금지됐으며 얼굴까지 모두 가리는 의상 착용이 의무화됐다.

특히 중·고등학교 여학생 교육을 불허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에는 이슬람 복장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학 여성 교육까지 금지됐다. /연합뉴스



에과도르 총기 난사로 9명 사망 에과도르 해군 병사들이 11일(현지시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서북부 에스메랄다스주 항구를 통제하고 있다. 이날 오전 피한 수십명이 보트와 택시 등을 타고 한 창고에 접근해 총을 마구 쏘 최소 9명이 숨졌다. 당국은 지역 범죄조직과 연관된 범죄로 본다. /연합뉴스



美·필리핀 남중국해합동훈련 논의 칼리토 갈베스 필리핀 국방장관,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간 '2+2'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필리핀이 올해 하반기에 남중국해에서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日, '독도 영유권' 한국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

일본 정부는 1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국의 외교청서에 대해 한국이 항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조치해 항의했다. /연합뉴스

## 日 잠수함 발사 장거리미사일 개발

### 미쓰비시와 3조 7000억 계약 지대함 미사일도 1000km로 늘려

일본 정부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미쓰비시중공업에 발주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미쓰비시중공업과 장사정 미사일 개발 및 양산과 관련한 4개 사업을 총 3780억엔(약 3조7000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장거리 미사일은 반격 능력의 핵심적인 무기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에 걸쳐 사거리 1000km가량의 잠수함 발사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다.

잠수함은 상대국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반격 능력을 보유하면 역지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기존 200km에서 1천km로 늘리는 개량형 개발과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 양산도 미쓰비시중공업과 계약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무기들을 2026년부터 납품하게 된다.

지상 발사형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함정이나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도 계약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자국산 개발 이외에도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도입해 2026~2027년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토마호크 블록5400발을 도입하기 위해 2023회계연도 예산에 2113억엔(약 2조 1000억원)을 반영했다. /연합뉴스

## 입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의식 잃은 채 병원 도착했다"

### 기관지염 치료 마치고 퇴원

최근 기관지염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퇴원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때 의식을 잃는 등 당시 상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급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RAI)에 따르면 교황은 지난 8일 친구인 미켈레 페리와 안부 전화를 하던 중 건강을 묻는 말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도착했다"고 답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날 29일 호흡 곤란을 호

소한 뒤 이탈리아 로마의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고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주요 일일발현까지 무사히 마쳤던 교황은 차에 올라탈 때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교통스러듯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면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교황은 사흘간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결과 다행히 건강 상태가 호전돼 지난 1일 무사히 퇴원했다.

제멜리 병원 입원 당시 교황이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교황의 건강에 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

인다.

교황의 친구인 미켈레 페리는 2013년 6월 3일 이탈리아 페자로에서 강도의 총에 목숨을 잃은 안드레아 페리의 형제다.

교황이 소식을 듣고 미켈레에게 연락해 인연을 맺은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있으며 이번 통화가 90번째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미켈레는 "교황의 목소리가 울림이 있고 단호했다"며 "교황과 100번째 통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1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삼암백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농성지점 062)361-4472~4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쌍촌지점 062)381-6551~2	동림지점 062)513-8521~3	버들지점 062)381-197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전지점 062)371-2772~3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